

“기회의 땅 중남미...꿈을 갖고 도전하라”

■광주 찾은 김 경 출 재멕시코 호남향우회장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나,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이 아니라,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장래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중남미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최근 광주를 찾은 김경출(64) 재 멕시코 호남향우회장은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라면 한번쯤 도전해볼 만 한 곳이 중남미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흥출신으로 13년째 향우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런 생각에 지난 2005년부터 500여 환우들과 함께 해마다 이 지역 불우 모병학생들을 초청해, 미주지역 견학을 시키고 있다. 미주를 여행하면서 민가를 깨닫고 배워서 현재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서다.

“호남사람들은 미주지역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으며,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호남인의 자긍심이 힘든 이민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남미 에콰도르로 이민한 것은 지난 1980년. 지금은, 현지에서 직원 400여 명을 거느린 원사(原絲)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이지만, 그때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도 심해 고생을 많이 했다.

**장흥 출신...현지서 원사공장 운영
매년 모범학생 초청, 미주지역 견학
“역경 이겨내는 힘 길러주고 싶어”**

하지만, 김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1982년 어느 날, 앞길이 막막하기만 한 그의 이민 생활에 새로운 전기가 왔다. 인근 5층 은행건물에 불이 났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5명의 현지인을 구해낸 것이다.

“당시 화재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다

섯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더군요. 모두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나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밧줄을 들고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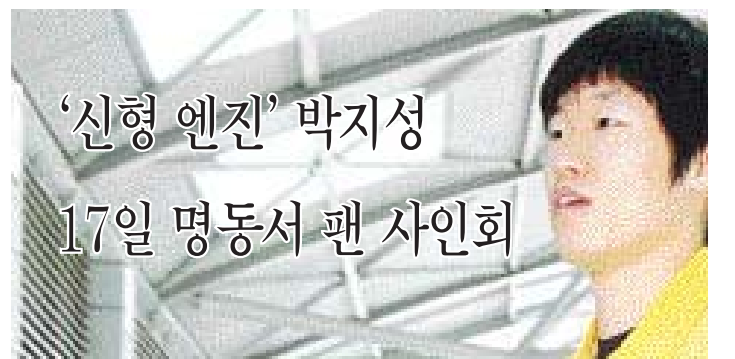
그는 밧줄에 의자를 묶어서 5명이 밧줄을 타고 건물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난간에 몸을 기대고 목숨을 걸고 끌어올려 지켜보던 사람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 일로 그는 현지 언론에서 ‘꼬레에서 온 영웅’이라는 찬사에, 상까지 받았고, 한국인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당시 한국교민들은 쉽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덕분에 사업도 번창하게 됐고, 이민생활에 자신감이 붙었죠.”

그는 1990년 멕시코로 이주한 뒤 1995년부터 호남향우회장에 당선돼 교민들을 추스르는 한편, 광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세계한민족공동체 고문 등을 맡아 고국을 돕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인원기자 ahj@kwangju.co.kr



‘신형 엔진’ 박지성
17일 명동서 팬 사인회

재활과정을 밟고 있는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17일 명동 한복판에서 팬들과 만난다.

박지성의 옴통 후원사인 나이키는 박지성이 17일 낮 1시20분 중구 명동 ‘나이키 맨유 스토어’ 개장식에 참석해 자신의 맨유 애장품을 전시하고 팬들과 토크쇼, 풋프린팅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지성은 길거리 무대에 올라 즉석에서 팬들과 30분 간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다. 말 솜씨가 좋아진 박지성의 재치있는 입담을 들을 기회.

또 사인이 들어간 맨유 유니폼을 선물하고 2006-2007 프리미어리그 우승 메달도 내보인다. 매장 안에는 영국에서 1만부 한정 발매된 무게 34kg 짜리 구단 역사집 ‘맨유 오피스’도 전시된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과 ‘맨유의 전설’ 보비 찰튼이 공동 집필한 이 책에는 미공개 사진 300장이 들어있다고 한다.

베컴, 美 LA 갤럭시 유니폼 입다

데이비드 베컴(32)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 미국 프로축구(MLS) LA 갤럭시에 공식 입단한다고 AF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LA 갤럭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부 홈 구장인 홈디펜서에서 입단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잉글랜드 대표팀 간판 미드필더 베컴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다 5년 계약으로 LA 갤럭시로 이적한 베컴의 미국 진출 데뷔전은 2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친선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컴은 입단식에 앞서 흰색 유니폼 왼쪽 상단에 LA 갤럭시 마크가 새겨진 상의를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세계 최장신 중국 남성 결혼식 올려

세계 최장신인 몽골족 출신 중국인이 12일 상대한 전통 결혼식을 올렸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 레이밍구 자치구에서 출생한 키 236.2cm의 바오시순은 2005년 기네스북에 살아있는 세계 최장신으로 공식 등재된 인물.

그는 이날 오후 29살의 몽골 처녀인 사수취안과 전통 결혼식을 올렸다.

전통 의상을 입은 신랑 바오씨는 수레를 타고 신부측 가족이 기다리고 있던 천막에 들어가 신부측 가족들에게 인사한 후 신부측 측 여성들이 민요를 부르는 것을 들은 뒤 수많은 객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부를 맞았다.

신부 사수취안 키가 168cm로 큰 편이지만 신랑 옆에 섰더니 조그만 아이같이 보였다는 후문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신랑신부가 사용한 마방한 침대 등 가구가 없어 무척 고민했으나 한 침대 제조사가 길이 3m나 되는 특별 제작된 침대를 결혼 선물로 제공기로 해 고민을 덜었다고 전했다.

“눈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보세요”

‘경상도 사나이’ 김지훈 감독이 말하는 ‘화려한 휴가’

영화 ‘화려한 휴가’. “어떤 모습의 영화일까”란 질문이 개봉 직전까지 따라붙는다.

우선 5·18 광주민중항쟁을 에둘러 다가가지 않고 정면에서 접근한 영화라는 거의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정국에 민감한 소재에다 100억 원의 제작비를 쓰고 안성기, 김성경, 이요원, 이준기 등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블록버스터’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게다가 연출을 맡은 김지훈 감독은 대학 입학 후야 5·18 운동의 실상을 알게 된 대구 출신의 ‘경상도 사나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김지훈 감독은 “진정성을 담은 영화이고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봐야 할 영화”라고 말했다.

“화려한 휴가”는 정치적인 배경과 원인을 좀처럼 부각하지 않았다. 대신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현상에 집중했다. 그러나 일부러 배제한다고 해서 정치

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시간 내에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사회 전반과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것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생활 속에 있는 거죠. 정치색을 굳이 뽀다기 보다 눈앞에 보이는 부분을 그렸습다. 배경보다 사민이 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영화의 소재가 민감한 만큼 영화의 상업성도 고민스러운 대목일터. 그는 ‘시민을 위한 기록’과 ‘잘 빠진 상업 영화’의 중간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싣고 싶었는지를 묻는 무언에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한 지점에서 만났다는 현답을 내놨다.

“5·18 운동을 단지 복권하고 평가하는 것만으로 역사적 소멸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숨 쉬었던 사람들의 고민과 외침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더 많은 보편성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숨 쉬었던



사람이 동시대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했고 그런 지점이 영화가 가져야 할 미덕인 동시에 대중영화로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장면을 찍기 전에도, 찍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될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넘어야 한다고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중화 TV 14일 ‘파오량 장나라’ 다큐 방영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수 장나라의 현지 활동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됐다.

케이بلTV 중국전문화채널 중화TV는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파오량(漂亮) 장나라’를 14일 오후 10시에 방영한다.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장나라의 첫 단독 콘서트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부터 공연 연습 과정, 베이징 생활, 리허설, 공연 장면까지 밀착취재해 장나라의 열정과 인간적인 모습을 담은 첫 장나라 다큐멘터리이다.



고은 시인, 독서의 소중함 일깨우다



‘독서 아카데미’ 개원 특강

을 가졌다.

‘고은 시인이 들려주는 나의 책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고씨는 시를 접하게 된 계기를 들려줬다.

고씨는 “나는 원래 빈센트 반 고흐 같은 화가가 되고 싶었다”며 “중학생 시절 4km의 시골길을 걸어 통학했는데, 어느날 길에서 우연히 시인 한하운의 시집을 주워 한센인의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한 그의 시를 읽고 한없이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책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왔다”고 덧붙혔다.

그는 “파도와 이슬 등 세상의 사물 하나하나가, 나와 너가 모두 책이고, 그런 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며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읽는 책을 통해 우리 마음을 치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해방 뒤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읽었을 때였어요. 속이 탁트이더군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시인이 되려 했었나 봅니다.”

시인 고은(74)씨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삼양동 문화콘텐츠텐터 2층 콘텐츠클에서 열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독서 아카데미’ 개원 행사에 참가해 특별 강연

인사

◆법무부
▲오석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화순군
◇5급 (승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의회전문위원 김영식 ▲동면장 민경술 ▲동북면장 임병배
〈전보〉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화순읍장곽화열 ▲춘양면장 김영열 ▲이양면장 문찬주 ▲도곡면장 김용현 ▲이서면장 천용수 ▲남평면장 최성기
◆MBC
▲보도국장 김상수 ▲보도국 편집에디터 임홍식 ▲ “ 정치국제에디터 선동규 ▲ “ 문화스포츠 ” 송기원 ▲보도제작과 2580팀장 홍수선
◆하이트 맥주
◇승진
▲상무이사 이구연(광주지점)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입적식(원광대 의대 병원)씨 장남 창근(대한조선학사원)군 이길택(서일초교 교장)씨 막내 주림(일곡초교 교사)양=14일(토) 낮 12시 신양파크호텔 웨딩홀.

▲김용재씨 아들 기육군 국방현(초원건설 대표이사)씨 딸 나형양=14일(토) 낮 12시30분 영암군 현대호텔.

▲서길용(서강전문대 학장)씨 차남 지형군 이영준씨 차녀 부영양=15일(일) 낮 12시30분 제일일인식 일에수제집과 광주중앙교회.

▲김원씨 차남 병국군 고명균씨 장녀 현혜양=15일(일) 오후 1시 리더스클럽 상촌점 2층 컨벤션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 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리 실적=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 민원실 2층.

▲(사)국제제철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광주대 총동창회 사무처 이전 현판식=13일(금) 오후 6시 동림빌딩 5층. 369-6882~3

동창·동문회

▲대동고 13회 동창회 모임=13일(금) 오후 7시 부부막. 011-613-5498

▲복성중 제 14회 동창회(회장 장상엽) 월례회=13일(금) 오후 7시 미연복집. 226-4743

▲광주 서중·일고 46회 동창회(회장 임영철) 모임=16일(월) 오후 6

시30분 금수장. 011-605-3096

▲호동 32회 동창회(회장 김성곤) 월례회=16일(일) 오후 8시 봉나물 삼겹살. 523-2550

향우회

▲재광 장흥군 향우회(회장 김후식)월례회=13일(금) 오후 7시 그랜드호텔 11층. 011-611-6208

모집

▲호남학연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가칭) 직원 모집=문화소양과 사무능력 갖춘 자. 사무국장 45세 이하, 사무원 30세 이하. 10월~18일까지 접수. 국장 월 150만원, 사무원 월 100만원. 4대보험·주 5일근무·퇴직금. 문의 234-2727, www.r-culture.co.kr

▲광주항교 사서삼경 수강생 모집=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3시, 5시. 주역·논어·맹자·소학. 문의 672-7008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Ms magic 회원 모집=각종 이벤트·축제·레크레이션 공연 등 마술회원 모집. 227-1991

▲오리학회 수강생 모집=조리사 자격증반·생활요리반·푸드 코디네이터반·외식 창업요리반 등 수강생 모집. 야매 주말반 운영. 문의 385-0723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무료 노 래교실 수강생 모집=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계림동 마사회 광주지점 2층. 문의 410-5000

▲광주인연맞기학교 처방지원활동가 모집=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차량 자원 활동가 모집. 문의 010-2323-2688

▲제 3의학연구소 무료 강좌=심신 건강·습관 교정·활기찬 삶을 원하는 사람. 문의 227-0464

▲광주유교대학 신입생 모집=매

주 월·수 수업. 문의 672-6501

부음

▲오필남씨 별세 나운중(대신증권 올림픽지점 부지점장)·남운(자유업)·명채(·)·도금(·)·세운(·)씨 모친상=발인 14일(토) 광주 송정장례식장 2부향소. 062-941-4400

▲김용근(번호사·전 광주지방법원장)씨 별세 원영·하영·호영·기우씨 부친상 전도영(번호사·전 광주지방법원장)·국대현(토마토상호신용금고 고문)·윤재철(인문인·시사신문 사장)씨 빙부상=발인 13일(금) 금호장례식장 301호. 227-4382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남몰모특별분양
전화 (062)521-1100